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생명샘 장로교회

Spring Well Presbyterian Church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springwellpc.org

2025 S. Goebbert Rd. Arlington Hts.

Tel) 630.673.9207



주일 예배 2026년 3월 1일 오후 1시

인도/박화신 목사 반주/김현경

합심 기도 / 다같이

*찬송 / 만 입이 내게 있으면 / 찬송가 23(신) 23(구)

*성시 교독 / 성시 교독문 15번 (시편 27편) / 다같이

*신앙 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송 / 나 속죄함을 받은 후 / 찬송가 283(신) 183(구)

기도 / 최명희 권사

성경 봉독 / 사도행전 7장 47-50절 / 다같이

성가대 찬양 / 아무 것도 두려워말라

말씀 선포 / 종교를 넘어, 하나님을 만나다 / 박화신 목사

성찬식 / 내 너를 위하여 / 찬송가 311(신) 185(구)

교회 소식 / 다같이

*폐회송 / 진리와 생명 되신 주 / 찬송가 630(신) 547(구)

*축복 기도 / 박화신 목사

오늘 설교 말씀 요약

1.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보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역사 속에서 내 삶이 어디에 있는가”를 묻는 것입니다. 믿음은 인생을 성공시키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길 위에 삶을 맡기는 선택입니다.

2. 하나님은 성공의 결과만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옥, 광야, 거절처럼 실패처럼 보이는 자리에서도 일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고난의 여부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신뢰입니다.

3. 신앙은 하나님을 이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자유롭게 응답하는 관계입니다. 결국 신앙은 하나님을 위해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역사 속에서 “예”라고 반응하는 삶입니다.

생명샘 장로교회 2026년 표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교회 막1:15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지난 주일 설교
단 하나라도
순종한다면

행 1:13-14

1. 기적보다 강한 기대의 틀

제자들은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병 고침과 자연에 대한 권세, 죽은 자의 회복, 변화산에서의 영광 까지 경험했지만, 그들의 이해는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메시아를 여전히 정치적 회복과 민족적 승리의 틀 안에서 해석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니라, 이미 굳어져 있던 기대의 구조였습니다. 눈앞의 기적보다 더 강력했던 것은 마음속 전제였습니다.

2. 무너진 기대, 흔들린 공동체

왜곡된 기대는 결국 공동체를 흔들었습니다. 서로 다른 배경과 성향을 지닌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흩어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랐지만, 어쩌면 예수님 자신보다 그분이 이루어 주실 미래를 더 붙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기대가 무너질 때 신뢰도 무너졌고, 공동체 역시 붕괴되었습니다. 십자가는 그들의 잘못된 하나님 나라 이해를 드러내는 자리였습니다.

3. 기다림과 순종에서 시작된 부활

그러나 부활 이후, 제자들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 다시 배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재교육의 절정은 “기다리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들은 즉각적인 행동 대신 약속을 신뢰하며 머물렀습니다. 성령충만은 극적인 체험 이전에, 말씀에 대한 구체적 순종에서 시작됩니다.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붙들고 순종할 때, 우리의 시선과 사고, 삶의 방향은 서서히 하나님 나라를 향해 재정렬됩니다.

생 명 샘 소 식

1. 생명샘 장로교회의 주일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2. 2026년 교회 표어를 '복음, 하나님 나라를 사는 교회'로 합니다. 복음을 말로만 고백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오늘의 삶 속에서 살아내는 교회의 정체성을 담은 표어입니다. 우리 교회는 예배와 말씀, 교제와 섬김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우리의 삶과 공동체 안에서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3. 교회 홈페이지에 실리는 매일성경을 통해 말씀과 동행하시길 축복합니다.
4. 매주 금요일 저녁 8시에 있는 사도행전 성경공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드립니다.
5. 파라과이 목장 3월 21일 토요일에 모입니다. 파라과이 목장 / 조창(목자) 김정신 박래석 박송화 조은영 최명희 최상천
6. 3월 29일 주일 예배와 친교 후에 각전도회 모임이 있습니다.

3월 예배 위원

안 내	조 창	최명희
기 도	최명희(1) 최상천(8) 박래석(15) 조은영(22) 한규철(29)	

교 회 모 임 안 내

주일 예배	EM 예배	교회 학교	EM 성경공부	제직 성경 읽기	금요 성경 공부	목장 모임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1시	주일 오후 3시	월요일 저녁 7시 30분	금요일 저녁 8시	매달 네번째 토요일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결국 질문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 거하시는가? 하나님은 특정 공간에 고정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인간이 세운 구조물이나 제도가 그분의 거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벽 안에 보관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주권이 실제로 받아들여지는 자리에서 드러납니다. 자아가 내려오고 하나님의 통치가 승인되는 그곳이 곧 하나님의 자리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소유한 기관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주권 아래 끊임없이 재정렬되어야 할 공동체입니다. 개혁주의 전통이 강조하듯, 교회는 완성된 체계가 아니라 항상 말씀에 의해 개혁되어야 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의 구조에 기대어 존재하지 않으시고, 교회는 오직 하나님께 의존할 뿐입니다.

교회를 약화시키려는 급진적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를 하나님 중심으로 되돌리는 요청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종교적 안전장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절대주권 앞에 다시 서라는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틀 안에 안주하지 않으시며, 언제나 우리를 넘어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